치료기금 바닥…'위기 학생' 지원 중단 위기

광주교육청 자살 시도·학교 부적응 학생 정신과 치료 지원
올 예산 1억원 1학기에 소진…'관심군' 2759명 대응 못해

광주시교육청에서 자살충동 등 정신과적 상담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위기 학생 치료기금'이 사실상 바닥나면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해마다 정신과적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은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자살 시도 전력 또는 충동이 있거나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한해 전문기관 상담치료 및 정신과 약물 치료비로 개인당 최대 200만원(입원 치료)까지 지원하는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역 자살 학생 수는 모두 21명에 달하는 등 위기학생이 늘고 있어 도입됐다.

이날 현재까지 치료비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받은 학생 수는 109명이다. 지난 2005년과 지난해엔 각각 51명(예산 5000만원)·71명(6000만원)이 지원받았다.

문제는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줄지어 서 있는데도, 예산이 사실상 고갈돼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모두 1억원이 편성됐지만 지난 1학기 때 전액 집행됐다. 예산이 바닥나자 시교육청은 지난 1학기 당시 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병원 또는 전문상담기간 치료를 받기로 했다가 받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각 병원 등으로부터 치료비·상담비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회수 대상은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전문 상담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역 40개 기관 등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환수한 예산도 지난 1학기 때 신청한 학생 중 사안이 중한 학생을 우선 순위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2학기에 지원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정신과적 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이 해마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시행 중인데, 이중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광주지역 '관심군' 학생 수는 모두 275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고교별로는 ▲초등학생 3만795명 중 1095명(3.56%) ▲중학생 1만5431명 중 893명(5.79%) ▲고등학생 1만8245명 중 771명(4.23%)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위기학생 치료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데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고민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선 해당 사업 지원금을 받아 학생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교사들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선별 지원 중"이라며 "해당 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부모 입장에선 거부반응이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청 지원사업을 통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해 권유하고 싶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평창 화이팅~" 광주서 보내는 응원 메시지

2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이이남 작가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큐브전'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과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스크린에 올리고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25 해짐 18:21 달뜸 13:27 달짐 23:51

더위 끝 기온 뚝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쌀쌀하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8/25	보 성	맑음	16/25
목 포	맑음	19/29	순 천	맑음	19/27
여 수	맑음	18/26	영 광	맑음	18/24
나 주	맑음	17/26	진 도	맑음	19/25
완 도	맑음	20/25	전 주	맑음	17/24
구 례	맑음	16/25	군 산	맑음	17/24
강 진	맑음	18/26	남 원	맑음	17/25
해 남	맑음	18/26	흑산도	맑음	19/22
장 성	맑음	17/2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5~3.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5~2.5	북서~북	1.0~2.0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55	06:45
	--:--	19:40
여수	07:10	16:04
	21:18	14:20

◇ 생활지수

식중독	위험
자외선	높음
피부질환	보통

◇ 주간 날씨

29(금)	30(토)	10/1(일)	2(월)	3(화)	4(수)	5(목)
13/22	13/26	14/26	18/23	18/25	14/24	13/24

'농도 전남' 농기계 안전사고 최다

최근 3년 전국 4465건중 20%…예방교육 효과 못거둬

농도(農都) 전남이 농기계 안전사고 최다 발생지역으로 꼽히면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2014년~지난해)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농기계 안전사고 4465건 중 전남 발생건수는 874건(19.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698건)·경남(696건)·충남(643건)·전북(534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36건(사망 26명, 부상 279명) ▲2015년 282건(〃 29명, 〃 215명) ▲지난해 256건(〃 20명, 〃219명) 등이었다.

매년 전국적으로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끊이질 않으면서 농촌진흥청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해당 교육을 받은 농민은 85만95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6만1639명 ▲2015년 29만4806명 ▲지난해 30만3100명 등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3년간 약 88억의 혈세를 투입해 농민 85만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했지만 사망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추석 연휴 고속·시내버스 운행 증편

광주시 특별교통대책 추진

추석 연휴를 맞아 광주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증회되는 등 특별교통대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특별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석을 전후한 10월3~6일 상무지구~광주종합버스터미널~국립 5·18민주묘지 방면 '518번' 시내버스를 하루 56회로 증회(9대 증차)해 배차 간격을 줄여 운행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북초교~수곡을 운행하는 '지원15' 시내버스는 노선을 일부 변경해 영락공원을 경유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3개 노선에서 하루 274회(30대)를 운행해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도 고속·직행버스를 하루 250회 증회(총 1650편) 운행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9월29일 새벽 1시까지 지하철 1호선 2편을 연장 운행한다. 항공편과 고속열차는 증편 없이 평소와 같이 운행된다. /오광록기자 kroh@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에 '예술문화 쉼터'

100m 이내 이장우 가옥·미술관 등 관광자원…12월 완공

광주시 남구 근대역사문화마을에 관광객 휴식처인 '예술문화 쉼터'가 조성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12월 말 완공 목표로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에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 지상 1층 규모(연 면적 58.05㎡)의 '예술문화 쉼터'(한옥 1개동)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쉼터가 완공되면 관광객들은 미술품 전시 등을 관람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쉼터 100m 안엔 최승효 가옥·이장우 가옥·한희원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해 이를 연계할 경우 광주 최고의 문화예술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쉼터 앞에 주차장(5면)을 조성해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남구 신영석 주무관은 "해당 지역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식후 먹는 약 음식물 함께 먹어야 효과

복약기준 '식후 30분→식후' 변경

서울대병원은 기존 '식사 후 30분'이었던 기본 복약 기준을 '식사 직후'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복약 기준이 식사 후 30분으로 돼 있어 환자가 시간 준수에 대한 부담을 갖거나, 약 복용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약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처방 약은 종류와 성격에 따라 식후·식전·취침 전 등 3가지 방식으로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기준변경은 식후 방식만이다. /연합뉴스